진정한 위험은 '멈추지 못하는 마음'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① AI 기술 질주 앞에서 묻는 윤리적 질문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인간의 욕망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위험해질까.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문장은 감탄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을 담보로 한 계약이 실행되는 대사다. 파우스트는 이 문장을 진심으로 말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성취와 함께 영혼의 자유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내어 주기로 약속한다.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가 어떤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괴테는 이 한 문장에 압축해 두었다.

작품 속 파우스트는 무지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철학, 법학, 의학, 신학까지 모두 섭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한다. 더 알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으며 인간의 조건 자체를 넘어서는 힘을 갈망한다. 중요한 점은 그의 욕망이 결핍에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결국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의 본질은 지식의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윤리를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이다. 파우스트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집요하지만, 그 가능함이 낳을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는다.

이 장면은 오늘날 "먼저 만들고,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AI 개발의 가속주의 논리와 정확히 겹쳐진다. 기술은 손에 쥐는 순간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자유의 비용은 늘 뒤늦게 드러난다. 파우스트가 얻은 능력은 놀랍다. 그는 젊음을 되찾고 사랑을 얻으며 자연을 개간하고 문명을 확장한다. 그러나 그의 성취가 쌓이는 곳마다 누군가의 삶은 무너진다. 그가 사랑했으나 끝내 파멸로 몰아넣은 연인, 그레첸의 비극은 파우스트의 악의가 아니라, 자기 성취에 도취된 나머지 책임을 유예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AI 역시 악의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모델, 더 빠른 연산, 더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 내는 성취의 순간마다, 우리는 묻지 않은 질문들을 남겨 둔다. 이 기술은 누구를 배제하는가, 어떤 고통을 가속하는가, 어떤 생태적 비용을 남기는가. AI 개발 경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성능의 도약 앞에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다.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말은 기술 자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 멈추는 법을 잊었을 때, 가장 찬란한 성취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AI시대의 윤리란,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감탄의 순간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AI 개발 경쟁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AI 패권을 쥐기 위한 기술과 자본의 결집이 곧 국가 경쟁력과 기업 가치로 환산되는 시대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말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판단 구조와 권력의 흐름,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재편하는 핵심 행위자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에 비해, 우리가 던지는 윤리적 질문은 지나치게 늦고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오늘날 AI 개발은 명백히 경쟁의 논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먼저 만들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공포, 먼저 점유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는 불안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집요하게 반복되지만,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늘 뒤로 밀린다. 그래서 이 연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술의 성능이나 전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예돼 온 윤리적 질문들이다.

경쟁 논리로 선점 중요한 AI시대
알고리즘이 결정 책임 회피 야기
행위 결과, 의도와 선택으로 귀결
윤리적 질문 멈추지 않는 용기 要
불교 윤리가 성찰 사유의 틀 제공

AI시대의 윤리적 쟁점은 과거의 기술 문명과 질적으로 다르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는 책임의 주체를 잃어가고 있다. 알고리즘의 결정 앞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데이터에 내재된 차별이 자동화될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언어와 감정 표현은 우리의 판단을 어디까지 흔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기술적 해결로는 결코 봉합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윤리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이다.

더 나아가 AI는 생태 위기라는 중대한 윤리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연산을 위한 전력 소모, 희귀 자원의 채굴, 빠른 기술 교체가 남기는 폐기물은 기후 위기와 직결된다. 기술은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생태적 비용이 존재한다. 인간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구축된 지능이 다른 생명과 미래 세대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면,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다.



불교 윤리는 AI시대를 성찰하는 유용한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불교는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를 먼저 물어 왔다. AI 윤리를 불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기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인간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요청이다. 출처=구글 나노 바나나 생성 이미지

이 모든 사안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위험이 흐른다. 인간이 판단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언어가 돼 가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행위의 결과는 언제나 의도와 선택으로 귀결된다.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붓다는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의도이다. 의도함으로써,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업을 짓는다"라고 설한다. 나의 결정을 타인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 윤리는 AI시대를 성찰하는 강력한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불교는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그 행위가 어떤 고통을 낳는가"를 먼저 물어 왔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AI 역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두려움, 경쟁 논리가 얽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 연재는 AI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AI를 둘러싼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윤리적으로 묻는 작업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앞으로 AI 의식 논쟁, 책임과 자율성, 차별과 감시, 생태 위기, 노동과 존엄, 통제 불가능성의 위험까지, AI시대가 던지는 윤리적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 볼 것이다. AI 윤리를 불교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기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기술을 이끄는 인간의 마음을 되돌아보자는 요청이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이는 너다."

초기 경전인 〈맛지마 니까야〉 제86경에서는 '멈춤'이라는 윤리적 전환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 주는 일화가 전해진다. 바로 연쇄 살인범 앙굴리말라가 붓다에게 "멈춰라!"라고 외쳤던 사건이다. 앙굴리말라는 당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고 다니던 악명 높은 살인자였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미 999명을 살해하고 단 한 명만을 남겨 천 명을 채우려 했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 희생자로 붓다를 지목하고 칼을 들고 뒤쫓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붓다는 평상시처럼 천천히 걸을 뿐인데, 아무리 전력을 다해 달려도 앙굴리말라는 그와의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지쳐 버린 앙굴리말라가 결국 소리친다. "사문이여,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때 붓다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답한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이는 바로 너다." 이 말은 물리적 움직임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붓다가 말한 '멈춤'은 탐욕과 분노, 무명에 의해 몰아가는 삶의 방향을 멈추는 것이었다. 반대로 앙굴리말라는 온몸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폭력의 충동을 한 번도 멈춰 세운 적이 없었다. 이 한마디는 앙굴리말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붓다의 제자가 된다.

진정한 위험은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다. 붓다는 폭력을 제압하지 않았고, 더 빠른 힘으로 맞서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누가 멈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는 오늘날 AI 기술과 경쟁의 속도 앞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가장 오래된 윤리적 물음이기도 하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단고문 석 암 도

승정원 대승정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장 석법령 위원 석일우 위원 석도명 위원 석청산 위원 석체법 위원 석일두 위원 석혜천 위원 석일현 위원 석진공 위원 석보각 위원 석해공 위원 석보현 위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 도선 / 중희의장 석 일두 / 어 산 장 석 도암 / 부 원 장 석 대공 / 조사부장 석 성도 / 사서부장 석 성우 / 문화부장 석 성타 / 총무국장 석 성민 / 포교국장 석 혜진 / 의전국장 석 균중 / 문화국장 석 원종
교육부원장 석 원융 / 호법원장 석 종허 / 감찰원장 석 원허 / 총무부장 석 성덕 / 수행부장 석 성현 / 조직부장 석 성각 / 포교부장 석 천지 / 지원국장 석 해인 / 포교국장 석 법정 / 수행국장 석 성조 / 의식국장 석 성탁
비구니회장 석 보현 / 기획원장 석 담허 / 의전원장 석 법도 / 감찰부장 석 성보 / 사회부장 석 자광 / 종무부장 석 성안 / 연수부장 석 원희 / 봉사국장 석 성광 / 포교국장 석 성원 / 종무국장 석 성진 / 사서국장 석 성오

비구니회 회 장 석 보현 부회장 석 지현 부 장 석 성안 국 장 석 해인
위 원 석 원조 석 천지 석 성원 석 호준 석 반야 석 혜현 석 현덕 석 현도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 천 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 의 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 명 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 성 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 홍 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 혜 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 원 해 / 대전중앙종무원장 석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 체 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 문 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 태 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 도 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 성 원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 함 월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 청 암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 일 지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동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진허

종립미래로봉사회
희 장 학 산 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 총 무 대각심 김경숙 / 임 원 혜명심 박현숙 /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 부원장 혜 정 이영숙 / 국 장 불심화 정형숙 / 무 용 무애심 박순애 /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 임원
울산원장 법 광 / 종무원장 성 종 / 홍보원장 원 명 / 구미부장 혜 진 / 부산부장 혜 성 / 경기부장 자 운
전남부장 혜 명 / 대구부장 혜 련 / 충북부장 상 학 / 포교국장 덕 운 / 종무국장 도 연 / 서울국장 명 덕
포교국장 청 운 / 통영국장 덕 인 / 화순국장 보 정 / 포교국장 혜 경 / 칠곡국장 보 혜 / 창원국장 혜 운

법인단체임원 대표이사 석 도선 / 등기이사 체법 성만 보현 무산 / 운영이사 성덕 청암 학산 성원 / 감 사 성민 성각

총본산 · 총무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